

광주시교육청, 미래교육 동력 확보

내년도 예산 3조 575억원 확정 광주형 AI 미래교육 구축 중·고등생에 노트북·태블릿 보급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4,655억 원(18.0%) 증가한 3조 575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교육회복 및 교육격차 해소, 광주형 AI 미래교육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이점선 교육감의 공약 실천에 비중을 뒀다.

우선 교육회복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645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빛고을 다 같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지원튜터, 학습보조교사 등 기초기본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보충지도에 힘쓴다.

교육복지도 확충된다. 내년 학교무상급식 식품비를 유지율은 3.4%, 초·중·고등학교는 평균 15.3% 인상한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단가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해 급식 질 향상을 꾀한다.

시교육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학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졸업앨범비도 신설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만원을 인상해 각각 15만원, 20만원을, 고등학교는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지원액이 없었던 고등학교를 포함해 2023년에는 초·중·고 일괄적으로 3만원을 지원한다. 졸업앨범비도 신설해 초·중·고 모든 학교 졸업대상자에게 1인당 6만원을 지원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광주형 AI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063억원도 반영됐다. 원격수업 및 정보화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중학생에게 노트북을, 고등학생에게 태블릿을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빛고을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시설환경, 환경위생관리 등에도 3153억원이 배정됐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에는 광주화정중 등 12개교에 대한 공사 진행과 시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 개선 예산도 마련했다. '365스터디룸 조성'을 통해 개인별, 그룹별, 온라인 학습공간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에게 소통 및 휴게공간인 쉼공간(다운프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맘 편한 화장실 조성 127억 원(41개교), 내진보강 83억 원(공사 14교, 성능평가 33교), 석면교체 217억 원(34개교), 스프링클러설치 22억 원(기숙사 8교, 특수학교 1교)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이점선 교육감은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누적된 교육결손 회복과 교육사각 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안전·학교위생 강화 등 교육환경개선에도 집중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 향상을 통한 광주형 미래교육 구축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교지원센터' 5점 만점 4.09점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 '업무 지원 체제 개선 TF' 운영

전남교육청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교육지원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교직원 1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09점으로 평가됐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감소 체감도는 평균 3.92점으로 파악됐다.

개선점으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학교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학교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업무통합지

원협체(가칭)' 운영과 '지원업무 발굴 추진 사업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과중한 학교업무 경감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업무가 최첨단화되고 빨라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신규업무도 지속적으로 늘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 체제 개선 TF'를 운영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 청소년 역량 강화... '훈훈한 AI교실' 성료 호남대, 겨울방학 기간 'AI큐브 SW교육 캠프' 운영

AI빅데이터연구소(소장 백관)와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운자)이 지역 청소년들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으로 진행한 '훈훈한 AI교실'이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나주혁신도시 라온초등학교(학교장 조숙희) 교육을 끝으로 1·2학기 일정을 모두 마친 '훈훈한 AI교실'은 1학기 5개 주제(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심리, 인공지능 의사,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12시간 과정에 이어, 2학기에는 희망 학교마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개별 주제(인공지능 이해, 메타버스이해, 자율주행차 구현) 과정을 병행 운영했다.

총 27개교 655명의 지역 초·중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모은 메타버스 실습교육 담당 이성아 교수(교수학습개발원)는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큰 관심과 빠른

적응력을 보여 미래세대 우리 지역 인공지능산업의 희망을 봤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은경 교수는 "학생들이 자율주행 실습을 통해 설계와 코딩의 결과를 구현하는 등 큰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교육부 주관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기관에 선정된 호남대학교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훈훈한 AI교실'의 확대 심화과정인 'AI큐브 SW교육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백관 교수는 "훈훈한 AI교실을 통해 우리지역 학생들의 SW역량을 측정하고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며 "AI큐브 SW교육 캠프에서 더욱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중·고생들의 신기술 역량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다문화 자녀 사회 적응·학업 돕는다 광산구 가족센터와 협약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등을 도우며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에 앞장선다.

동강대는 최근 광주 광산구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가족센터 지원 대상 주민들의 대학 진학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동강대 김명수 산학협력단장과 광산구 가족센터 장은미 센터장이 참석해 우리사회에 다문화 학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인 학업 교육과 진로 준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동강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광산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학년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입시설명회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등록금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계



약학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P-Tech' 등을 소개했다.

특히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광산구 가족센터 이주 여성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준비한 전기용품을 전달했다.

김명수 단장은 "동강대는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 특히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 곳곳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내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초기창업패키지 우수 주관기관 선정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40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대는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받으며 '우수'를 획득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과 지원 및 창업 아이템 검증 등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성장 지원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이나 고급 기술을 가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돕는 것이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전환, 현재까지 4년 연속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화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사

창투(창업한마당) 프로그램을 공동 이행하며 기술사업화 및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내 창업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멘토링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완석 단장은 "시장 중심형 창업기업의 요구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 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재료 ★ 감미료 ★ 산성항료 ★